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부활의 확인은 사랑의 확인

토마스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처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고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확인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십니다.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이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을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이며 구원의 삶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근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부활을 이루시고 인간을 새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토마스는 부활을 이루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끄찍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신했기에, 이제 자신들을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상처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처는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징이었습니다.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거칠어진 부모들의 손이, 자식 사랑의 표징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토마스는 주님 상처 자국에 손을 넣어 보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인한 토마스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보고, 확인하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도 당신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 믿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새 생명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또 다른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형제자매들의 사랑도 한결같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웃의 사랑을 믿기보다는 의심하기 때문에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사 그들 안에 미처 모르는 미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한결같은 사랑은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새 생명, 곧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믿을 때, 먼 훗날 천국에서 살아갈 그 부활의 삶이 여기에서 시작됨을 알도록 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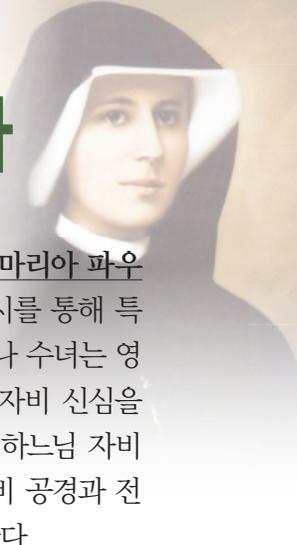
노영환 마티아 신부 | 진영분당 주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사도 5,12-16
- 화 답 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제 2 독 서 묵시 1,9-11,12-13,17-19
- 복 음 요한 20,19-31

하느님의 자비 주일과 성녀 파우스티나

채동호 루도비코 신부



부활 제2주일이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제정된 사실과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은 폴란드의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수녀로부터 시작되었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수도 생활을 하는 동안 계시와 환시를 통해 특별한 은사들을 체험했고, 자신의 사명이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다. 파우스티나 수녀는 영적 체험을 통해 받은 하느님의 메시지들을 일기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했고, 이 일기는 하느님 자비 신심을 널리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 자비의 사도’로 불리운다. 하느님 자비 신심은 하느님의 자비상과 자비의 5단 기도 및 오후 3시 자비의 성시간, 자비의 축일 제정과 자비 공경과 전파에 관한 내용이 그것인데, 이 5가지 자비의 신심 가운데 자비의 축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폴란드의 크라쿠프 대교구의 교구장 시절에 이미 파우스티나 수녀의 삶과 메시지와 하느님의 자비 신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통하여 전 세계 교회와 일반 사회에까지 하느님의 훌륭한 특성이며 구원경륜의 비상한 특성인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결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들을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았으며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을 자신의 일기를 통하여 전파한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였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자비를 찬양하며 감사드림으로써 더욱 하느님의 자비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것은 결국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주님께서 “나는 자비의 축일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붓으로 그린 이 초상화가 부활주일 후 첫 주일에 성대하게 축성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은 자비의 축일이 되어야 한다.”(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49)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부활 후 첫 주일을 하느님 자비의 축일로 선택한 데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절의 구원의 신비와 하느님 자비의 신비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신비의 완벽한 관계는 자비의 축일에 앞서 하느님의 자비에 바치는 9일 기도를 성금요일에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서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서는 자비의 축일을 맞기 위한 준비로서 성금요일부터 시작하는 9일 기도를 바치면서 자비의 축일을 맞기 위해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는 영혼들에게는 죄와 벌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약속하셨다.

앞에서 언급한 축성된 초상화, 곧 예수님의 성심에서 붉은 색깔과 흰 색깔의 두 갈래 빛이 나오는 초상화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상이다. 붉은 빛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의미하고 흰 빛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나타낸다. 이 자비상 아랫부분에는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지도록 하신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그대로 그리도록 당부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자비상 앞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기리며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의탁이라는 그릇을 준비하여 하느님의 자비 신심을 실행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자비의 선물, 곧 많은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앞에서 언급한 축성된 초상화, 곧 예수님의 성심에서 붉은 색깔과 흰 색깔의 두 갈래 빛이 나오는 초상화가 바로 하느님의 자비상이다. 붉은 빛줄기는 영혼의 생명인 피를 의미하고 흰 빛줄기는 영혼을 의롭게 하는 물을 나타낸다. 이 자비상 아랫부분에는 “예수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지도록 하신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수녀에게 그대로 그리도록 당부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자비상 앞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기리며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의탁이라는 그릇을 준비하여 하느님의 자비 신심을 실행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자비의 선물, 곧 많은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느님 안에 고요히 침잠하고 싶은 이들을 위하여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지친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 다 잊고 떠나 홀로 고요히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그런데 막상 개인 피정을 하기 위해 피정집에 머물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잠을 실컷 자는 이들도 있고, 성경이나 영적 서적을 읽는 이도 있다. 숲을 산책하거나 성당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명상에 잠기는 이들도 있다. 같은 피정 공간을 사용하는데 어떤 이는 마지막 피정 면담 때 너무도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으며 감사의 인사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는 지루하고 힘들고 불편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여기에는 공통적인 피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 기도의 개념(기도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봉헌된 시간이다)처럼 피정의 첫 번째 목적이 '내' 영혼의 쉼이나 '내' 마음의 평화, 혹은 온갖 분석을 통해 '나의' 내면의 어둠을 찾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 피정은 '하느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께 집중하여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는 특별한 시간이다. 우리가 많은 봉사과 노동, 그리고 관계들에 얽혀 있고 지냈던 하느님 품에 안겨 그분 안에서 영적 쉼 시간이다. 피정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태도는 피정을 세미나, 심리적 안정, 영적 공부나 수련 등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수녀원과 수도원에서 피정 지도를 할 때 많은 경우 한 시간 정도의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혼자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다. 하느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신자들의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피정 시간표를 짜고 지루할까 봐 '찬양의 시간'이나 '레크리에이션'도 갖게 하고 마지막 날에는 '주(酒)님(?)과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도 마련해 주는 경우도 있다. 고요히 혼자 머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평신도가 그런 것은 아니다. 가령 필자가 있는 명상의 집에도 매달 정기적으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며칠 동안 관상기도를 하며 피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 피정을 갖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느님께 침잠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내적 고독과는 다른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정이나 일상의 삶 속에서 고요히 마음을 모으고 하느님 곁에서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 침잠의 상태에 도달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흩어진 생각과 마음을 고요히 모으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기도나 피정과 같은 시간은 하느님의 은총인 관상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로써 이를 영성가들은 Recollection, '침잠'(沈潛)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침잠'이란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침잠의 영성에 대해서 낯설게 느끼는 이가 많을 것이다. 'Re-collection'은 '다시 모으다'는 뜻으로,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함'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가톨릭에서 이 용어는 "영성 생활에서 영혼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로 집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용어는 하느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외적이거나 세속적인 일로부터 마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영혼이 하느님과 홀로 있는 내적 고독과 같은 의미이다.

침잠은 활동적인 침잠(active recollection)과 수동적인 침잠(passive recollection)으로 나뉜다. 전자는 하느님의 은총에 자신의 노력이 더해져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침잠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영혼이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이나 신적인 완전함에 집중할 수 있는 성향을 얻을 수 있다. 후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존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동적인 침잠을 많은 신비가들은 주부적 관상(注賦的 觀想)의 초기 단계로 묘사한다.

수동적인 침잠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는 활동적인 침잠이다. 육체적, 정신적 긴장을 풀고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고요히 머물며 마음을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침묵과 고독으로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활동적인 삶의 다양한 의무들이 내면의 한가운데로 조용히 침잠 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일들에 사로잡히는 것은 침잠의 장애물들이다. 자주 이러한 하느님의 현존 속에 머물므로써 침잠은 그 자체로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된다.

다음 호에 계속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영어 Peace는 라틴어 Pacem에서 유래하고, 라틴어 Pacem은 평화, 전쟁의 부재라는 뜻을 가진다. 그 당시 Pacem을 다르게 부르는 Pax는 로마같이 강한 나라가 중심이 되어 안정적 결속을 이루는 것을 평화라 생각했다. Pax Romana는 1, 2세기 로마제국이 겪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기간을 말한다. 로마제국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는 세계 역사상 위대한 행정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제국의 모든 분야에서 방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쇠퇴하고 있던 공화국을 새로운 군주제로 바꿨다. 그 후 수 세기 동안 로마제국의 지속적 평화를 가져다 줬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것도 ‘Pax Romana, 로마의 지배에 따른 평화’에 기인되었다. 고통에 시달리며 폭력의 종식을 탄원하는 모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세워지게 하소서!

요즘은 세상 걱정이 많아졌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행정과 정치적 행보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볼 기회도 많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대하고 판단하고 또 비교도 하게 된다. 새 정부가 바뀌면 옥타비아누스 못지않게 체제를 바꾸고 징벌과 권력 제거를 위해 힘쓰는 정치적 현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지혜로운 정치력을 갖추지 못하고, 날 세워 자신의 신념만을 내세우는 듯 보이는 행보는 국민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 걱정도 많아진다. 정치인으로서 자기 추구 욕구를 성취하는 것을 우위에 두는 행태는 국민이 뽑아 세운 지지와 염원에 너무도 미치지 않아 실망을 주기도 한다. 속수무책으로 무속이 판치는 혼란을 보고 있자니 한심스럽다. 웃을 일 없는 현실사회에서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선거의 수장이나 대통령에게 잘한다 박수 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기대이고 욕심인 것인가? 그래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잘해 나가리라 믿어 보는 수밖에 별다른 없다.

평화를 뜻하는 그리스어 ‘에이레네(Eirēnē)’는 ‘하나로 합쳐지다.’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부분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평화로움을 뜻한다. 세상에 평화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을 맞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에 나타나시어 건넌 첫 말씀, “평화가 너희와 함께”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준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 생길 수 있는 평화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통해 얻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얻어지는 평화는 기쁨과 사랑, 감사함을 동반하고 얻게 된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두 제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걸었다. 한 스타디온이 185m이니 이 마을을 11km 떨어진 곳이다. 걸어서 3시간 낙담한 채 건넌 제자들과 그분은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둠이 깔린 집에서 두 제자는 그분과 함께 묵으면서 함께 빵을 떤 그때, 놀랍게도 그들과 함께 걸었고 얘기 나누고 함께 식사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알아차린다. 밤이 새도록 그 감동의 사건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며 증언했다. 마음 무겁고 괴로운 우리네 삶에 늘 계시는 주님, 우리 여정에 어두움이 깊어지는 그 길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리라 믿는다. 그 믿음은 고통과 어둠은 어둠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시간이 된다.

아시시

유시연 레아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아시시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원에는 한국인 수녀가 있다. 갖고 간 누룽지를 좀 드릴까요, 했더니 아니 그 귀한 것을? 그러며 좋아한다. 우연히 수녀원 식당 옆자리에 앉게 된 미카엘 신부님을 만나 예기치 않은 여정이 진행된다. 신부님은 안식년을 맞아 여행 중이며 부산신학대학에 적을 두고 있다. 십 년 전 로마에서 유학한 미카엘 신부님의 유창한 이탈리아에 동행하여 미네르바 신전이 있던 자리, 그 앞 광장에서 와인, 에스프레소, 오렌지주스를 마셨다. 피테가 이탈리아 기행 중 감탄했다는 노천 바였다.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인 미네르바 신전은 현재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천 년이 넘는 신전 터에 세워진 1300년 된 성당 건물이 담백하고 밝은 색조로 이방인을 맞아준다. 유한한 삶, 짧은 생의 도정에서 바라보는 오래된 신전은 무심하고 편안하다. 이천 년 전의 건물과 세계에 잠겨 있다가 주교좌성당으로 향한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가 세례를 받은 성당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저녁 해가 기울어지고 있었다. 성당 안에는 고해실마다 붉은 등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언제 고해를 했더라. 까마득하다. 마음을 가다듬고 앞 사람의 뒤에 선다.

부활절 밤 미사와 낮 미사에 참여했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무덤위에 세워진 대성당 입구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군용차를 세워놓고 일일이 검색을 한다. 미카엘 신부도 제의를 갖춰 입고 미사집전에 동참했다. 웅장한 파이프오르간 소리가 높은 천장 돔을 휘돌아 울려 퍼진다. 성가대를 지휘하는 수사신부의 희끗희끗한 뒷머리가 보이는 가운데 그의 열정 가득한 지휘가 눈에 띈다. 1독서, 2독서를 수녀가 한다. 신의 제단은 봉헌된 자들의 몫이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평신도의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그 이전에는 오직 축성된 신분만이 신의 제단을 밟을 수 있었다.

불안정한 국내정세에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원은 이기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민족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며 부유한 삶을 버리고 평생 가난을 실천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부활 대축일이 지나고 평온한 일상이 시작되었다. 낮선 거리에서 걷고 또 걸었다. 오래된 담장을 따라 걷다 보면 삶의 유한성에 대해 영원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간이 고여 있는 공간, 느리게 흘러가는 고도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본다. 내 생의 어디쯤에서 스쳐 지나갔을 풍경과 낯선 이름과 보편적인 정서를 느끼기도 하면서 강물로 흐르는 생을 고요히 응시한다. 오르막을 숨이 차서 험뎌지며 오르기도 하고 계단에 앉아 쉬기도 하면서 오늘도 나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삶이 진행되는 한 모퉁이에서 있다. 씨앗이 돌벽 틈새에서 자라나고 봄이 대지를 감싸 안는 이 눈부신 빛의 향연 속에서 아찔한 어지러움에 눈을 감았다 뜬다. 천 년, 이천 년...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인간은 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기행 에세이집 『이태리에서 수도원을 순례하다』에서 발췌





일림

교구 사목 방문
 일시: 4월 26일(화)
 본당: 팔용동/ 사파동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4월 27일(수)
 본당: 옥포/ 장승포/ 지세포
 일시: 4월 28일(목)
 본당: 고성/ 대진/ 복신동/ 태평동
 일시: 4월 29일(금)
 본당: 장평/ 거제

▶ 교구/본당

청년성서모임 '에파타' 교구청 그룹공부 신청 안내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와 나눔 모임입니다.
 기간: 4월 24일(주일)까지
 모집주제: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신청: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접수 
 문의: 청년성서담당 055·249·7050

2022 상반기 만남의 잔치
 청년성서모임 만남의 잔치에 교구의 모든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5월 1일(주일) 10:00~15:30
 장소: 밀양 명례성지
 참가비: 5천 원
 문의: 010·2961·9918

청소년 사목자연수
 일시: 4월 26일(화)~28일(목)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앙대학
 일시: 4월 30일(토)~5월 1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 위원회/기관/단체

자비사도회 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사 안내
 일시: 4월 24일(주일) 15:00
 고해성사-14:00부터
 장소: 사파동성당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화미사 안내
 일시: 5월 1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5월 기도모임
 일시: 5월 2일(월) 14:00~성체조배
 14:40~미사(주례: 정운호 신부)
 15:10~회의
 장소: 완월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교구봉사자
 문의: 회장 010·3903·8234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피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기타

부활절이 피정(2박 3일)
 일시: 4월 29일(금) 19:00~5월 1일(주일) 14:00
 장소: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원주 본원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누구나
 문의: 010·4732·8247

성모님과 함께하는 치유 대피정(2박 3일)
 일시: 5월 13일(금)~15일(주일)/ 5월 20일(금)~22일(주일)/ 5월 27일(금)~29일(주일)
 장소: 청도성모솔숲마을(대구대교구)
 주제: "성모님 품에서 값없이 먹고 자고, 원없이 기도하자"/ 인원: 50명씩(피정비 없음)
 문의: 010·5613·0166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5월 1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한국외방선교회	-	-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살레시오회	수시(문의바람)	창원 젊음의 집	심재현 치릴로 신부 010·2042·8353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세계최초 음향표준 이어폰
 당신이 꿈꿔왔던 감동의소리를 만나보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sonicast>
 (네이버에서 '소니캐스트'로 검색 가능)
 대표 이사: 이의열 대건 안드레아/ 055-288-3768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굴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소품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업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 : 010-5055-0076

예수수도회 5월 피정

청년주말피정: 5월 14일(토)~15일(주일)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3545피정: 5월 20일(금)~22일(주일)

대상: 35~45세 미혼 여성

문의: 010·2314·1645

2박3일 침묵피정: 5월 27일(금)~29일(주일)

문의: 010·9808·0208

피정장소: 메리워드센터(서울 오류동)

카톡채널: 빛더하기-예수수도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ac.or.kr

제16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금)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대방동본당 정의의 거울 Pr. 1,000차 기념 주회



대방동본당(주임: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정의의 거울 Pr.은 4월 6일 1,000차 주회를 맞아 기념 주회를 가졌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사제들과 수도자가 함께하며 단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다 함께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다.

로템의집 19주년 기념 감사미사



지난 3월 30일 로템의집(관장: 조정혜 로사)은 '마음을 다하여 함께 걷기'라는 주제로 로템의 집 19주년, 로템자리 11주년 개관 감사미사를 최훈 타대오 신부(교구 사회복지국장)의 주례로 봉헌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손님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로템의집 소녀들을 위해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코로나19로부터 무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조정혜 관장은 "19살이 된 로템의집 소녀들이 기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리고, 성인이 되는 내년에 로템 정원에서 모두 만나 뵙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광야를 사십 년 동안 헤매게 된 이유(민수 13-14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파란 광야의 카데스 바르네아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잠시 여장을 풀고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지켜봅시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십니다(민수기 13장). 정찰대를 보내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 사는 주민들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고, 그 땅이 과연 비옥한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보내며, 그 땅을 둘러본 후 그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정찰대는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찰하였습니다. 때는 포도철(7~8월)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도송이와 석류, 무화과를 따서 가져옵니다. 이 정찰대의 보고에 따르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험세고, 그들의 성읍은 거창한 성채로 되어 있으며, 거인족으로 알려진 아낙의 후손들도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 험센 이들이 차지하여 사는 땅이며, 그들을 몰아내기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찰대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여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모의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소식을 퍼트린 이들이나 그들의 절망에 전염된 이들이나 모두 하느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느님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나 봅니다. 슬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느님에 대한 기억과 믿음은 새로운 위기 앞에서 실종되고 맙니다.

그러자 함께 가나안 땅을 정찰하러 갔던 여호수아와 칼렘이 그들을 막아서며,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려 합니다. 그들이 주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저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니 저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돌을 던져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칼렘을 죽이자고 선동합니다. 이에 하느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며, 이 백성을 흑사병으로 치고 모세를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명성과 자비하신 속성에 근거하여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모세의 중재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는 계획은 거두시지만 그들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곧 열 번씩이나 하느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한 이 세대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며, 40일에 해당되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찰대에 속한 이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칼렘을 제외한 다른 열 사람은 모두 재앙을 당하여 죽습니다.

광야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칼렘은 현실에 무지한 낙천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가나안 정복의 어려움을 예측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하느님께서 도우시면 무엇이든 가능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느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에 바탕을 둔 희망은 인간 삶에 존재하는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직시하며, 현실을 지배하는 듯이 보이는 찰나적인 힘 앞에 굴복하지도 패배당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느님께 있음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칼렘의 권유를 받아들여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땅에 이르는 여정을 서둘렀다면 사십 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면 이 광야 길은 정화된 신앙에 이르기 위해 그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간: 2022년 2월 8일 ~ 2022년 3월 31일 ▶ 총액: 248,000,000원

1. 사제

성명	금액	성명	금액
구성진	600,000	이재혁	600,000
권창현	1,800,000	이진수	4,800,000
김길상	600,000	이학률	7,200,000
김종훈	4,800,000	정영규	10,000,000
김형렬	200,000	함영권	500,000
김화석	2,400,000	황봉철	10,000,000
노종래	600,000	황인균	5,000,000
서정술	200,000	익명	1,000,000
이상록	400,000		
계		계	51,600,000

2. 기관, 시설, 단체

명칭	금액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10,000,000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3,000,000
작은형제회	100,000,000
체나콜로	5,000,000
재)가톨릭평화방송(ARS)	70,000,000
마산교구 전례꽃꽃이회	1,000,000
한국외방선교수녀회	5,000,000
함안 성모어린이집	1,000,000
천주교 광양성당	300,000
계	195,300,000

3. 개인(교구 내)

성명	금액	성명	금액	합계
고광자	1,000,000	조화신	100,000	1,100,000

4. 개인(교구 외)

합계 35,294,600원

강동희, 고성자, 김규준, 김덕규, 김리나, 김수빈, 김예숙, 김옥희, 김정선, 김종란, 김지운, 김진성, 김현, 남경애, 노태환, 박기석, 박기선, 박명덕, 박은정, 박진복, 박희정, 백말순, 변기훈, 변해철, 손기례, 신승철, 심선미, 양용준, 오요한, 우재일, 유은경, 윤은숙, 이계숙, 이명진, 이미자, 이순식, 이영미, 이용란, 이정희, 이철근, 이현섭, 임수현, 정운영, 정현호, 조우현, 조화신, 최복순, 태런스 데이비스, 한기봉, 한미숙, 한상윤, 그외 익명으로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5. 분당

▶ 기간: 2022년 1월 24일 ~ 2022년 3월 31일 ▶ 총액: 630,525,682원

■ 가음동 15,000,000원

형부덕(아가다), 황재영(레오)

- 완납: 김무홍(레오), 김영필(체칠리아), 김정숙(아가다), 김정진(말세리노), 민복기(유스티노), 이용호(라파엘), 황귀숙(스텔라), 황기수(레미지오)
- 분납: 강정순(유스타), 곽태호(요셉), 권기욱(베네딕토), 김경화(로사), 김대현(하상바오로), 김동률(토마스 아퀴나스), 김만득(엘리사벳), 김민숙(로즈마리), 김성애(로사), 김성운(미카엘), 김성태(요셉), 김영숙(미카엘라), 김영원(로마노), 김윤선(미카엘라), 김장수(베드로), 김지현(엘플레다), 김진혁(루도비코), 김해수(아타나시오), 김형진(요셉), 명성호(오딜론), 민병길(다니엘), 박대원(빈첸시오), 박대희(안나), 박명준(프로스펠), 박선정(엘리사벳), 박순미(엘리사벳), 박중현(라파엘), 박찬일(베드로), 백광열(도미니코), 백문조(베드로), 서광선(디오나시오), 신경열(안토니오), 양홍석(요한보스코), 엄현용(가브리엘), 유덕실(골롬바), 유숙원(가브리엘), 이곡지(가타리나), 이석진(브루노), 이성애(데레사), 이소연(크레산도), 이영은(베로니카), 이영철(세례자요한), 이재현(베드로), 이필순(안나), 이해숙(로사), 전시훈(요셉), 정성운(토마스), 정혜진(베로니카), 조임순(살로메), 조재승(요한), 주정숙(가타리나), 주창현(레오나르도), 최삼용(베드로), 최진영(루시아), 최홍규(시몬),

■ 거제 8,205,828원

- 완납: 광민화(데레사), 김가영(세실리아), 김대현(프란치스코)
- 분납: 윤수자(비비아나)

■ 거창 7,983,334원

- 분납: 강미애(로사), 고승환(하비에르), 공재관(요셉), 권현진(베드로푸리에), 김규태(프란치스코), 김수정(젤뚜르다), 김영태(요한), 김왕출(미카엘), 김정태(마르코), 김현성(안토니오), 문종숙(에리카), 박동운(마태오), 박일환(안드레아), 백매란(베로니카), 백평길(요한), 송순희(마리아), 신원영, 신정희(글라라), 이병진, 이숙기(로사), 이영일(로마노), 이종국(미카엘), 이천두(프란치스코), 이형복(말세리나), 장은미(효주아녜스), 정두환(프란치스코), 정종성(필립보), 정지수(테오도로), 조현목(미카엘), 채혜욱(세실리아), 천선옥(글로리아), 최원진(데오필라), 최준택(미카엘), 홍화순(로사)

■ 경화동 2,470,000원

■ 고성 14,600,000원

- 완납: 김민정(유스티나), 김열(요한), 박선희(엘리사벳), 박혜숙(마가렛), 이창영(스테파노), 황용숙(바오로)
- 분납: 강남훈(이시도로), 왕혜경(안나마리아)

■ 고현 22,500,000원

- 완납: 김건아(빅토리아), 김민환(바오로), 김현주(안토니오), 김희정(데레사), 반양석(도미시오), 백승호(갈리스토), 양재철(F.하비에르), 오세화(바오로), 옥정자(레지나), 윤명원(토마스), 윤은경(벨라뎃다), 이영호(바오로), 이종석(벨라도), 이효재(가롤로), 임상근(벨라도), 정민구(방지거), 정희숙(베로니카), 주들금(정혜엘리사벳), 채창희(미카엘)
- 분납: 강미선(비비안나), 강현숙(로사), 김경호(도밍고), 김계선(요안나), 김길영(베드로), 김명선(세실리아), 김명자(에스텔), 김민곤(베드로), 김성명(요셉), 김성부(아오스딩), 김성재(마지아), 김성환(마태오), 김성희(에스텔), 김수경(이레네), 김승희(세실리아), 김억(스테파노), 김종호(토마스), 김철홍(요셉), 김현자(모니카) 노지현(젼마), 문경식(루카), 박남연(모니카), 박미정(엘리사벳), 박자애(히야친타), 신수재(안드레아), 신유홍(베드로), 옥항아(아드리아나), 유세운(말다), 윤종혁(스테파노), 윤희정(세레나), 이근욱(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이금선(누갈다), 이복희(엘리사벳), 이재문(에드워드), 이현숙(레지나), 이혜진(아네스), 임재화(미카엘), 장순덕(요세피나), 장희자(벨라뎃다), 전병태(미카엘), 정공석(스테파노), 정성운(라파엘), 정영분(비비안나), 정호경(크리스티나), 정희수(안드레아), 조명자(체칠리아), 조재희(마리아), 채윤선(로스리아), 최준호(미카엘), 표범근(안토니오), 박남연(모니카)
- 추가: 김가밀라(가밀라), 박태규(아우구스티노), 양동걸(스테파노), 옥안나(안나), 유동환(가브리엘), 정방구(프란치스코), 정연만(F.사베리오)

■ 구암동 11,280,000원

- 완납: 김정남(미카엘라), 이미화(임마누엘라), 이상연(힐라리오), 전혜영(헬레나)
- 분납: 강순녀(로사), 김경옥(데레사), 김동석(요아킴), 김돌란(막달레나), 김성란(루치아), 김옥선(크리스티나), 김점이(카타리나), 김지수(유스티노), 김정은(마그리나), 김진홍(대건안드레아), 김해숙(크리스티나), 김화분(안젤라), 류관대(대건안드레아), 박남조(프리실라), 박연석(요셉), 석대희(다니엘), 송현희(스텔라), 신재순(글라라), 심효섭(토마스), 안상덕(다니엘), 윤경순(안젤라), 이상백(바오로), 이윤찬(스테파노), 이은지(로마나), 이희숙(아네스), 이희주(토마스모어), 임정섭(베드로), 정마리아(마리아), 황명란(로스리아), 황효숙(마리아)

■ 금산 5,150,000원

- 완납: 강금난(비비안나), 김명호(요한), 권경원(토마스), 이혜숙(헬레나)
- 분납: 감영숙(가브리엘라), 강은우(미카엘), 권동재(베네딕도), 김연숙(엘리사벳), 김영성(라파엘), 방호구(토마스), 배채웅(이나시오), 성인기(베드로), 이상민(라파엘), 전상윤(요한), 태광훈(스테파노)

■ 남성동 3,732,000원

- 완납: 구전자(모니카), 김영희(로스리아), 박용효(유스티노), 배동희(수산나), 이순자(엘리사벳), 이지수(아네스), 진수목(마지아)
- 분납: 곽옥순(수산나), 김수성(요한돈보스코), 나미례(올리안나), 노태완(마르코), 박명열(데보라), 박무홍(발렌티노), 박진형(바오로), 변희영(벨라뎃다), 사정자(엘레나), 신광순(발렌티노), 신소자(아가다), 안기자(레지나), 이재수(베드로), 전현주(올리안나), 전홍수(안도니오), 정경숙(카타리나), 차주현(베드로), 최호영(스테파노), 팽영자(올리아)

■ 남해 2,950,000원

- 완납: 김기식(노엘), 금나영(미카엘라), 류금이(유스티나), 박영신(요셉), 손갑진(마티아), 이상기(베드로), 익명 2

■ 대건 29,447,000원

- 완납: 강명호(비오), 곽나성, 김법정(요셉), 노월순(요안나), 류도형(이나시오), 박관석(이나시오), 성낙길(소피아), 송부관(베드로), 이대호, 이지훈, 임진숙(베레나), 전금식(올리아나), 전지용(올리아노), 정동길(베드로), 조미희(데레사), 조용득(로마노), 최미현(마리아), 최보나(보나), 최상동, 최진나(헬레나), 최현철(마르띠노)
- 분납: 공영기, 김강주(안드레아), 김보미(루도비가), 박강현(안토니오), 배정숙(젼마), 양희수(베드로), 이순욱(유스티노), 임수정(프레드릭), 천기일(마태오)
- 추가: 심영진

■ 대방동 80,151,000원

- 완납: 김임수(아네스), 김홍철, 김항성(바오로), 김효열(스테파노), 김휘진(요셉), 박미임(데레사), 박미진(첼리나), 박복덕(세례자요한), 박종화(안토니오), 방혜정(티나), 신윤숙(세실리아), 양현주(발레리아), 이태경(레오), 이후승, 전호원(라파엘), 정주영(바오로), 최분옥(요안나), 하정규(베드로)
- 분납: 고재진(요한), 권혁민(브루노), 김경선(글라라), 김미숙(아네스), 김민주(유스티나), 김보영(엘리사벳), 김서현(안나), 김순임(세레나), 김연수(아브라함), 김옥곤(안드레아), 김일규(비안네), 김정오, 김정이(크리스티나), 김홍양(프란치스코), 도철훈(라파엘), 류상민(스테파노), 박운우(요셉), 박정대(라파엘), 박정석(요한), 신완철(미카엘), 오갑선(미카엘라), 오상규(T.아퀴나스), 이부옥(빈첸시오), 이일나(글라라), 이정우(안드레아), 이종해(요한), 이주형(요한), 이현덕(F.하비에르), 전상조(요셉), 전석만(베드로), 전영배, 정병희(유스티노), 정윤석(마르꼬), 진선미(바울라), 진우영(스테파노), 천무환(세례자요한), 최봉수(베드로), 최양이(효주아네스), 최장운(요한), 최화수(마르치아노), 최희찬, 한미영(세실리아), 한호연(베드로), 허선화(베로니카), 홍종희(미카엘)

■ 덕산동 18,077,000원

- 분납: 강민채(체칠리아), 고현(미카엘), 곽순희(라파엘라), 권길미(요안나), 김고순(막달레나), 김군자(마리아), 김리하, 김문기(베네딕도), 김미영(에스텔), 김승기(요셉), 김휘경(요셉), 김희락(안젤로), 노해영(가브리엘), 류병윤(안드레아), 류희명(시

메온), 박동수, 박성구(시메온), 박정석(로마노), 배정수(미카엘), 서인교(바오로), 서주원(안드레아), 송민석(세쿰도), 송종규(요셉), 신숙(말가리다), 신화자(아녜스), 심정현, 양혜련(체칠리아), 여상구(요한), 유순분(젼마), 유영숙(모니카), 윤광원(베드로), 이강철(루카), 이계운(요한), 이순범(안토니오), 이순식(보나), 이승호(크리스도폴), 이재환(마르첼리노), 이종만(야고보), 이준용(비오), 이준희(스테파노), 정민철(미카엘), 조현찬(안드레아), 최규섭(비오), 최영명(베드로), 하재훈, 한승희(유스티나), 한은혜(안젤라), 허은영(데레사), 홍영환(다니엘), 황금숙(카타리나), 황분난(안나), 황상남(아셀라), 황순옥, 익명2

■망경동 16,550,000원

■명서동 27,186,000원

- 완납: 권창우(요셉), 김선국(레오), 김지연(모니카), 박진억(베드로), 유상희(요셉), 이명기(요셉), 이성수(테오니시오), 이일규(바오로), 이임호(바오로), 임영갑(마르코), 전태규(펠릭스)
- 분납: 강봉수(요셉), 강영혜(올리아), 강정현(요한), 강지현(베로니카), 고성훈(베드로), 고영라(데레사), 기봉현(안젤라), 김미연(미카엘라), 김미영(마리아), 김소현(마리나), 김숙련(루치아), 김영복(안토니오), 김영희(막달레나), 김은선(아녜스), 김정호(시몬), 김태근(요한), 김현수(요한보스코), 김혜영(요셉피나), 도유희(올리아), 류정금(데레사), 류창구(이냐시오), 문상숙(올리아), 문숙자(세실리아), 박강일, 박경규(안드레아), 박기식(레미지오), 박대희(프란치스코), 박성희(아브라함), 박신화(요한), 박연희(데레사), 박은지, 박재우(안젤로), 박진숙(마리아), 백정숙(엠마), 변희철(베네딕도), 서갑실, 서동민(카프라시오), 서민혜(아녜스), 서상우(요셉), 송명주(루시아), 신도영(레오니아), 심덕보(바오로), 원영우(베드로), 윤성기(요아킴), 윤희성(요셉), 이경자(엘리사벳), 이귀분(마리아), 이미란(세실리아), 이박미(레지나), 이상숙(루치아), 이수남, 이연주(마리아), 이영기(가브리엘), 이용근(안드레아), 이유진(마리아), 이익렬(대건안드레아), 이진호(비오5세), 임경숙(데레사), 임규섭(안드레아), 장소영(카타리나), 장지수(요셉), 전갑래(도미니카), 전운경(세실리아), 전인규(요아킴), 전진영(스텔라), 정동열(미카엘), 정원일(아벨), 정지송(요한), 정지훈(요셉), 조계인(다니엘), 조남익(라파엘), 조매자(아가다), 조미연(에메렌시아나), 조순동(엘리사벳), 주원돈(베드로), 차호(요한), 최기은(살레시오), 최성국(요한보스코), 최영희(마리아), 최옥희(루시아), 최은순(정혜엘리사벳), 최정애(카타리나), 최정진(모세), 최정환(알비노), 최현미(헬레나), 하연금(요셉피나), 하정희(아델라), 한순이(엘리사벳), 한진우(미카엘), 허기영(다니엘), 허성열(올바노), 황장미(마리아)

■문산 8,115,000원

- 완납: 공상석(대건 안드레아), 김미경(헬레나), 윤윤애(모니카), 이홍열(요한), 허용주(마태오)
- 분납: 강상선(미카엘), 고창희(세례자 요한), 권영근(베드로), 김용운(요셉), 김태호(루카), 김형렬(바오로), 문서영(도미니카), 박데레사(데레사), 박미나(안나), 송재용(바오로), 신동준(람베르

토), 신승노(스테파노), 이광섭(요셉), 이근민(가롤로), 이동진(아타나시오), 정봉진(대건 안드레아), 정필성(루카), 정호(타대오), 지부일(프란치스카), 하승연(바울리나), 하인숙(올리안나), 황인재(포티노)

■반송 30,000,000원

- 완납: 김길중(라파엘), 김미혜(베네딕다), 김지석(이사악), 이미화(올리아나), 이상록(도미니코), 이영숙(요셉피나), 이태규(필립보), 김현정(요셉피나), 문미지강(안젤라), 박창오(마르코), 정순화(지따), 홍사연(야고보)
- 분납: 강윤석(실바노), 강태선(마리아), 구본승(베드로), 구영숙(모니카), 권경범(프란치스코), 권정실(로사), 고대웅(토마스), 김경태(요셉), 김광덕(요한), 김구년(가브리엘), 김국태(프란치스코), 김동인(발렌티노), 김동현(피델리스), 김성완(발렌티노), 김영진(베드로), 김유상(베드로), 김인숙(필로메나), 김종주(비비아나), 김종현(클레멘스), 김준형(라파엘), 김한성(루치오), 김현정(엘리사벳), 김형록(프란치스코), 남시완(시몬), 노재호(베드로), 문경래(바오로), 문형기(라파엘), 민난희(다미아나), 박명애(바실리아), 박상양(파비아노), 박성철(F.하비에르), 박영동(펠릭스), 박영자(마르타), 박현수(릿다), 박현일(노엘), 배경언(가브리엘), 송정애(글라라), 신수철(세례자요한), 신윤순(카타리나), 안병국(요셉), 안성환(베드로), 양종덕(베드로), 여혜정(로엘라), 염태순(안나), 오근원(스테파노), 윤애자(아가다), 윤여웅(요한), 윤영찬(베드로), 윤호영(루카), 이고은(아녜스), 이명숙(스텔라), 이상호(요한), 이성준(젼마노), 이승현(레오), 이영옥(루치아), 이영호(안토니오), 이영희(마리아), 이옥선(프란치스카), 이울하(다니엘), 이재현(스테파노), 이현재(니콜라오), 이효경(요한보스코), 임길섭(니콜라오), 임윤순(안나), 정일화(세실리아), 정지완(시몬), 조덕환(빈첸시오), 조둘수(마리안나), 조성일(헬미네질도), 주연옥(제노베파), 차경섭(베드로), 최승대(빅토리노), 하정화(아가다), 한정란(데레사), 허근수(안드레아), 황경란(헬레나)

■봉곡동 12,860,000원

- 완납: 강호재(빅토), 구본관(후고), 김국광, 김정훈, 문성준(바오로), 문은진(베로니카), 민영함(야고보), 박부미(데레사), 박용석(파스칼), 이경극, 이영자(유스티나), 임영철(프란치스코), 장명화(마가렛다), 차봉길
- 분납: 강항욱(요셉), 권해영(루치오), 김슬기(젼마), 김진규, 남인혜(안나), 박성민, 박영옥(아녜스), 박정현(F.로마나), 박종균(아냐시오), 서영수(안드레아), 손연기, 이경극, 이성민(수산나), 이정호(빈첸시오), 임형준(빅토리노), 전진홍(요한), 조이용(마티아), 조혜영, 최인호(스테파노), 최진규(바오로)

■북신동 18,000,000원

- 완납: 김명숙(소피아), 김성애(안젤라), 김태영(빈첸시오), 류성현(도미니코), 박영주(베드로), 박정오(레오), 양은숙(데레사), 이경수(가타리나), 채구월(베로니카), 최문자(벨라지아), 최승한(바오로), 허금남(루실라), 허성만(바오로)
- 분납: 강명서(가타리나), 강윤규(돈보스코), 강치순(요한), 강현주(로사), 김민경(유스티나), 김예준(미카엘), 김종철(베드로), 김현

교구청 신축기금 봉헌자 명단

철(세례자요한), 박길윤(다니엘), 박민정(마크리나), 박인숙(루치아), 배은경(크리스티나), 서영미(루피나), 이상명(미카엘), 이정순(유스티나), 여현정(에스텔), 장민관(레오), 전진홍(도미니코), 정만국(세례자요한), 하경철(스테파노), 운영(아네스)

■사림동 27,060,000원

- 완납: 박영철(베드로), 김귀련(비비안나), 김정심(엘리사벳), 문윤수(타태오), 박분선(아네스), 배성진(요셉), 조용욱(발렌티노), 천동수(프란치스코), 홍순봉(토마스), 주순남(라파엘라)
- 분납: 강순희(레지나), 강승우(베드로), 강준교(대건안드레아), 김경진(베네딕도), 김미정(스텔라), 김성혜(아가다), 김순희(레지나), 김양조(왈브르크), 김옥곤(요한), 김우섭(미카엘), 김정희(아네스), 김진권(도미니코), 김희진(안나), 나상도(가브리엘), 문영숙(키니아), 문효민(요한), 박무훈(요한보스코), 박민용(안토니오), 박삼생(다마스), 박영선(오틸리아), 박현호(안젤로), 방승태(요한), 손도선(마리아), 우영수(보나), 유승현(루가), 이기범(가브리엘), 이두리(안나), 이승훈(베드로), 이암배(루치아), 이인숙(레아), 이정태(요한), 이현숙(사라), 임억규(아브라함), 정순녀(엘리사벳), 최광선(로즈마리), 하옥란(마리아), 허윤석(라우렌시오)

■사천 11,420,000원

- 완납: 구동선(미카엘라), 김순자(아가다), 노명선(라우렌시오), 문경희(스테파노), 안재완(프란치스코), 윤방숙(로사리아), 정경희(보나), 조기효(프란치스코), 최시문(시몬)
- 분납: 강복원(비오), 권영선(마리나), 김명심(로사), 김명환(라우렌시오), 김승현(요한크리스토포), 노승주(사도요한), 강기갑(로벨도), 박우주(파치아노), 박중명(미카엘), 송배영(요셉), 오남영(마리아), 이미자(실비아), 이주원(바오로), 이철(요한금구), 이한국(베드로), 이형복(그레고리오), 정정수(바오로), 제정백(F.하비에르), 제종원(프란치스코), 최전모(콤베)
- 추가: 김재식(요한비안네), 윤봉호(마태오), 정형재(베드로), 하문기(안토니오), 하종우(토마스아퀴나스), 하주연(마틸다)

■사파동 39,870,000원

- 완납: 김동수(도마), 김만석(대건안드레아), 김선숙(수산나), 김순란(율리안나), 김영완(가브리엘), 명민상(요한), 박민정(스텔라), 박상석(요셉), 백도영(안나), 성점숙(발렌티나), 성학제(바오로), 송민기, 신병섭(치릴로), 안금순(바울라), 안정순(누칠라), 오병관(모세), 오영석(레오), 은총의 샘 뿌레시디움, 이규환(라파엘), 이기완(이냐시오), 이성호(빈첸시오), 이승민(안드레아), 이시은(프란체스카), 이정훈(프란치스코), 장영임(스텔라), 장용섭(주기요셉), 정세영, 제병동(가스발), 조흥남(베네딕도), 최기숙(아가페), 홍승만(스테파노), 홍재숙(데레사)
- 분납: 강영훈(다니엘), 고순배(스콜라스티카), 고춘자(헬레나), 권순자(이레네), 권혜선(노엘라), 김경옥(안드레아), 김길호(다마스), 김대수(안드레아), 김동연(요한금구), 김상식(마카리오), 김승언(알베르토), 김영호(안드레아), 김윤지(에스텔), 김정균(타태오), 김정희(마리아), 김진협(바오로), 김채원(아네스), 김태엽(요셉), 김현아(아네스), 김현주(노엘라), 김혜진(카타

리나), 나청인(안토니오), 노주현(바오로), 문경란(안젤라), 문성진(토마스), 문장헌(바오로), 문종철(미카엘), 박근하(알리시아), 박상인(요셉), 박선욱(베드로), 박선희(마젤라), 박영식(미카엘), 박원기(바오로), 박종열(마티아), 박주호(요한), 박지현(데레사), 박진욱(요한), 박찬세(토마스), 박찬수(마태오), 박창욱, 박형근(마르코), 박혜숙(요셉피나), 박희지(빈첸시오 아바울), 방필규(유스티노), 배선영(가브리엘라), 배창호(마태오), 송재웅(미카엘), 원혜란(데레사), 윤삼섭(요한보스코), 윤용선(토마), 윤진수(히지노), 윤태중(레오), 이승우(펠릭스), 이용시, 임양빈(요한), 임원규(프란치스코), 장동혁(요셉), 장호영, 정윤서(실비아), 정재억(도미니코), 정판규(요한), 정해영(예로니모), 정현희(젬마), 조우성(요한), 조인행, 조희영(안젤라), 천병석(라자로), 천준홍, 최성석(바오로), 최우영, 한보혁(디모테오), 허헌정(클라우드리아), 황만호(아우구스티노), 황성진(바오로), 황창영(알베르토)

- 추가: 김기범(라파엘), 김대현(안드레아), 박순자(안젤라), 임소정(베로니카)

■산청 8,430,000원

■삼계 4,070,000원

- 완납: 김병숙(카타리나), 이미애(요안나), 이희수(바오로), 문천금(실비아)
- 분납: 김성춘(T.아퀴나스), 김소영(마리나), 김수미(크리스티나), 김용순(수산나), 김정애(로사), 김희정(미카엘라), 박근식(시몬), 박용오(필레몬), 박소자(막달라마리아), 박재순(글라라), 박타훈(요셉), 정연석(로마노), 안현진(이레나), 오정택(요셉), 윤선희(드보라), 이지혜(임마쿨라타), 임종순(율리아나), 허미영(카타리나)
- 추가: 박소정(레지나)

■삼천포 6,400,000원

- 완납: 김용호(프란치스코), 문민숙(베로니카), 박전순(히야친타), 유대욱(바오로), 정종문(베드로)
- 분납: 강갑순(율리아), 강종달(임마누엘라), 강헌(요셉), 김구성(경환 프란치스코), 김미경(크리스티나), 김새봄(보나), 김숙영(아가페), 김태웅(암브로시오), 박석자(크리스티나), 박용기(프란치스코), 박용립(베로니카), 소순덕(엘리사벳), 송창섭(바오로), 신선희(데레사), 이극수(미카엘), 임영균(바오로), 정재웅(요셉), 정진우(바실리오), 정찬길(로마노), 천금영(대건안드레아), 최경임(사비나), 최두남(루치아), 탁정희(효임콜롬바), 탁행순(엘리사벳)

■상남동 11,817,000원

- 완납: 강하나(마리아막달레나), 김영순(안젤라), 송형아(도로테아), 이경수(미카엘), 이재홍(안토니오), 이한제(도미니코), 장용철(마지아), 조해순(소화데레사), 최영선(젬마), 하채경(젬마), 한창우(베드로), (주)우진
- 분납: 강우영(비오), 권재배(토마스), 김장익(베드로), 김주현(요셉), 김태환(대건안드레아), 문혜정(히야친타), 박민수(데레사), 박

신석(바오로), 박희조(요셉), 배인숙(레지나), 소명석(프란치스코), 안병영(라파엘), 안세환(요한), 원미현(파우스타), 윤정하(이사악), 윤�필레(데레사), 이봉순(안젤라), 이상욱(토마스), 이재수(암브로시오), 이창수(미카엘), 장은경(골롬바), 장자림(마리스텔라), 천승환(라우렌시오), 최병영(토마스), 최인순(미카엘라), 하동희(리사), 허광휘(요셉), 허윤정(크리스티나), 황서분(마리아)

· 추가: 허금태(요안나)

■상평동 6,120,000원

· 완납: 강희숙(부르나), 변미자(아나다시아), 성순임(아녜스), 심성주(요한), 유수남(아녜스), 이증돌(율리아), 정재규(안드레아), 최성자(율리아나)

· 분납: 강현숙(아가다), 김수진(미리암), 이태은(마리아), 추현숙(데레사)

■수산 5,820,000원

· 완납: 김삼순(데레사), 김임숙(율리아), 김점순(소피아), 박희조(안드레아), 이보완(안셀모), 최보경(파스칼리나)

· 분납: 이경호(베드로), 이재구(베드로), 이지명(루치아), 양기덕(빈첸시오), 우정웅(발라바), 유희남(요한), 임영숙(로사), 차용인(요한)

■신안동 28,343,240원

· 완납: 강동엽(비디오), 권명화(율리아나), 권창현(이시도르), 김성기, 박성환(벨라), 박지영(율리아나), 서경섭(다윗), 서정우(까롤라), 손미희(소피아), 안인숙(로스리아), 윤매자(카타리나), 이병욱(안드레아), 임상록(아우구스티노), 임유성(에스텔), 전성훈(미카엘), 최한식(돈보스코), 하희자(카타리나)

· 분납: 강성민(야고보), 강영숙(도미니카), 강정길(알베르토), 고현정(아녜스), 곽진희(데레사), 권우근(프란치스코), 김경희(안토니오), 김명남(소화데레사), 김민규(알로이시오), 김상국(스테파노), 김영애(소피아), 김영자(도미니카), 김영희(수산나), 김용현(사도요한), 김종록(대건안드레아), 김지인(프란치스코), 김천수(돈보스코), 김판이(베드로), 김호준(안드레아), 류승우(베드로), 문권남(젤뚜르다), 박금자(아가다), 박미진(소피아), 박순자(데레사), 박영애(소화데레사), 박영조(가브리엘), 박영준(로마노), 박지만(요셉), 박지혜(아녜스), 배덕민(루까), 서원명(바오로), 서은형(데레사), 신애리(베로니카), 신행식(바오로), 안애숙(안젤라), 양강석(베드로), 양은지(베네딕다), 이상현(발렌티노), 이선표(펠릭스), 이숙자(루시아), 이원영(사무엘), 이재상(요셉), 이정일(빈첸시오), 이철영, 이치우(스테파노), 임길달(카타리나), 임영인(베드로), 장윤정(안젤라), 정가영(이사벨라), 정용규, 정윤교(시몬), 정필순(미카엘라), 조진철(스테파노), 주무경(요셉), 최수연(카타리나), 홍성원(시몬)

■양덕동 10,000,000원

· 완납: 김돌자(발라바), 백진상, 이종표(아오스딩), 조경화(막달레나), 조동이(엘리사벳), 최순년(마리안나), 최영주(엘리사벳), 익명 1

· 분납: 강병석(라파엘), 고원혜(아셀라), 김기덕(안토니오), 김춘자(헬레나), 김형태(안드레아), 박영희(안토니아), 박철홍(T.아퀴나

스), 서원호(마르코), 서지원(아가비도), 석진옥(안셀모), 윤서현(요아킴), 윤종수(마르코), 이경선(요안나), 정빈빈(실비아), 진미정(글라라), 최옥분(마리아), 최춘일(치릴로), 홍현숙(안나), 황선미(로사), 황정현(마리아), 익명 1

■여좌동 7,818,000원

· 완납: 봉하경(스테파노), 배정란(안나), 신동성(벨라도), 이만덕(힐라리오), 이인우(베네딕도), 조규원(미카엘), 조상현(요한), 진순연(델피나), 최경희(율리아),

■영산 1,550,000원

· 완납: 공차순(미카엘라), 이송학(안나)

· 분납: 김재훈(요한), 이도이(로사)

■옥봉동 7,950,000원

· 완납: 강용호(마르코), 문성준(루카), 서미자(글라라), 성수진(아녜스), 주성오(대건안드레아), 전주홍(미카엘), 최낙도(마리노)

· 추가: 황판남(아가다)

■옥포 22,455,000원

· 완납: 권혁정(바실리오), 김철민(요셉), 김태영(바드로시오), 김현지(에디트슈타인), 김흥곤(바오로), 박소윤(테오도라), 배주연(안젤라), 신영복(실바노), 신주현(프란치스코), 양국태(엠마누엘), 옥명수(베드로), 유상문(바오로), 이옥범(마리아), 임명란(로사), 정금효(사비나), 최희근(알렉산델) 한상연(헬레나),

· 분납: 강현용(아브라함), 강홍섭(스테파노), 구방현(프란치스코), 권영순(마리아), 권수연(유스다), 권태민(미카엘), 김동현(레오), 김명순(스테파니아), 김소라(미카엘라), 김옥란(비비아나), 김정순(아녜스), 김정옥(안나), 김해문(스테파노), 남성미(가타리아), 박미숙(데레사), 박미숙(엘리사벳), 박상운(이레네오), 박상인(요셉), 박선옥(도미니카), 박순식(베드로), 박재영(빈첸시오), 박희석(베드로), 배주연(안젤라), 백민경(에스텔), 서창섭(펠릭스), 송옥선(모니카), 옥규득(요한), 옥학연(유스티나), 윤계선(데레사), 이동욱(예로니모), 이순옥(막달레나), 이옥범(마리아), 이윤철(베드로), 이준규(요셉), 이현석(안드레아), 임영섭(빈첸시오), 장수선(막달레나), 장영희(도미니카), 전종근(사베리오), 전진수(마리아요셉), 정동기(마티아), 정철규(베드로), 조승헌(야고보), 진진옥(요셉), 최병삼(야고보), 최병철(스테파노), 최아삼(안나), 태기순(안나), 하태임(세실리아), 한영근(바오로), 한정옥(바울라), 익명2

· 추가: 이군수(마리아)

■완월동 4,430,000원

· 완납: 윤영태(시몬), 이순임(엘리사벳), 최명숙(수산나), 김동진(요한)

· 분납: 김상희(가브리엘라), 이형자(율리아), 윤인도(가브리엘), 민진옥(크리스티나), 최영민(요셉), 이동준(안토니오), 최호곤(프란치스코), 김용웅(야고보), 강성복(토마스 아퀴나스)

■용원 14,250,000원

· 완납: 강신명(요아킴), 김경순(발비나), 김명숙(마태아), 김석화(마

르코), 김지환(라우렌시오), 박근식(베드로), 박애자(아퀼라), 서정선(세실리아), 송희목(요한), 옥수진(에딜베르도), 이성욱(바울라), 이지만(다니엘), 이현덕(야고보), 정창화(요셉), 최준형(비오), 한순자(마리아), 허정혜(카타리나), 익명 2

- 분납: 강봉균(크렌센시오), 강순길(다비오), 고범률(안토니오), 김민정, 김치울(베드로), 박은희(가브리엘라), 박향진(엘리사벳), 손명숙(안젤라), 신대식(안드레아), 심해숙(아가다), 이원수(스테파노), 이인선(데레사), 장재욱(요한), 정연호(바오로), 최명철(도마), 한만직(요한), 황말숙(리디아), 익명 2

■용집 6,813,000원

- 완납: 권진희(울리안나), 김국연(데레사), 박민정(아가다), 조광섭(베드로)
- 분납: 김미애(비아), 김유미(마리아), 김정옥(프란치스카), 김현수, 박성진(요한보스코), 서영숙(울리아), 손태숙(안젤라), 윤현순(골롬바), 정수경(빅토리아)
- 추가: 김금생, 권진희

■월영 19,550,000원

- 완납: 고두석(대건안드레아), 권기연(안나), 김동은(아녜스), 김순임(데레사), 김영국(요셉), 김영선(마틸다), 김진승(대건안드레아), 김홍규(마태오), 민명희(아녜스), 박정순(유스티나), 서지원(안토니오), 이가자(루치아), 이미경(데레사), 이정하(첼뚜르다), 이정혜(세레나), 이필숙(바오로), 정민자(마르셀라), 정수련(데레사), 천홍영(안드레아), 최인순(요세피나), 최현자(젬마), 황두철(레오), 황숙희(루실라)
- 분납: 강나리(아니시아), 강또금(레지나), 강석태(마태오), 강성수(토마스 아퀴나스), 강승엽(여호수아), 강태규(미카엘), 강화정(데레사), 강희숙(스텔라), 광철윤(요셉), 권기호(루시아), 권상태(비오), 권원정(시메온), 김계수(즈가리아), 김교원(에두알도), 김근규(프란치스코), 김대진(프란치스코), 김문환(리노), 김민기(루치오), 김민철(안토니오), 김보옥(레지나), 김수경(소화데레사), 김영택(라우렌시오), 김재두(아오스딩), 김정혜(소피아), 김준홍(토마스), 김진영(안토니오), 김춘동(프란치스코), 김현숙(세실리아), 김현주(크리스티나), 김희자(안나), 남자경(에밀리아), 노수영(모니카), 문귀희(스테파니아), 문정희(헬레나), 민현주(헬레나), 박경희(로사), 박대석(요한), 박분선(카타리나), 박성혜(레베카), 박영희(로시엔), 박재경(프란치스코), 박정은(루시아), 박희정(엘리사벳), 백승곤(안사노), 서원옥(마리아), 서정숙(크리스티나), 손신기(안드레아), 손옥자(안나), 송덕영(제노베파), 송춘기(발비나), 송혜선(엘리사벳), 심재현(베드로), 안봉선(리디아), 안은주(헬레나), 유성숙(리디아), 윤중근(시몬), 이경숙(크리스티나), 이경애(미카엘라), 이민자(레지나), 이분임(골롬바), 이성열(도미니코), 이승준(그레고리오), 이승진(그레고리오), 이영희(베르디아나), 이정숙(루시아), 이철리(요한), 이효원(안토니오), 임금숙(스텔라), 임영애(미카엘라), 장영애(카타리나), 장용걸(알베르토), 장은실(벨라렛다), 전정재(요한), 정선자(막달레나), 정순덕(모니카), 조순옥(엘리사벳), 조현영(레오), 조현주(실비아), 조현철(바오로), 주갑순(리디아), 천말수(베네딕도), 천승환(요셉), 최성황(펠릭스), 최영수(안

드레아), 최한규(미카엘), 하성광(요한), 한동은(스테파노), 허성배(프란치스코), 홍민철(에지디오), 홍숙경(사비나), 황주연(아모스), (주)만들레 생각

- 추가: 신용철(유스티노), 조규대(마태오)

■의령 8,294,000원

- 완납: 김영숙(다시아나), 김흥기(마태오), 김희주(세라피나), 박수영(대건안드레아), 성복전(막달레나), 신태환(야고보), 신정희(아녜스), 이용호(마티아), 이점이(안나), 장영대(사도요한), 최용원(세례자요한), 하일순(젬마), 황민옥(미카엘라)
- 분납: 강용전(가스발), 김동원(엠마누엘), 김영신(페트라), 박미영(데클라), 오진선(베를린다), 왕순영(안젤라), 이승훈(베드로), 이택순(프란치스코), 장동욱(요셉), 정동영(가브리엘), 허로민(마리스텔라)

■장등 2,536,000원

- 완납: 김옥순(로사리아), 백죽엽(예로니모), 박순자(루치아)
- 분납: 안정준(바오로), 장도영(마태오), 이수일(비리버), 노종수(요셉), 김정미(루시아)

■장재동 3,490,000원

- 완납: 김복순(안젤라), 박순애(미카엘라), 배명환(토마스아퀴나스), 성국현(빈센시오), 이춘덕(헬레나), 정운도(바뜨리시오), 정명호(요아킴), 장난이(아가다), 추광순(골레타)
- 분납: 김판식(헬레나), 박영주(아가다), 신현자(릿다), 이경도(안토니오), 최운기(가스발)

■장평 8,440,000원

- 완납: 김남숙(안나), 김승준(요한), 문옥기(바오로), 박금선(데레사), 반현식(스테파노), 안동선(수산나), 전강희(엘리지오), 정형국(스테파노), 조경숙(아나다시아), 조용제(엘리사)
- 분납: 강경원(아우구스티노), 강성만(마르코), 김영숙(헬레나), 김임선(말가리다), 김재욱(야고보), 김점숙(마리아), 김지영(아델리나), 김태한(가밀로), 김현석(시몬), 박순옥(실비아), 박홍(그레고리오), 배종형(마티아), 배현근(바오로), 변영신(요셉), 서진원(바오로), 서태욱(레지나), 장한홍(알베르토), 정연환(안토니오), 최선화(비비안나), 최창훈(베드로)

■중동 13,270,000원

- 완납: 강홍수, 구용문(요한), 김기환(말구), 김명자(엘리사벳), 김성용(시몬), 김수현(크리스티나), 김재평(비오), 남경희(울리안나), 백부자(아가다), 서무홍(그레고리오), 오명선(아가다), 우은민(시몬), 유고은(바오로), 윤명용(네스플), 이명희(크리스티나), 이상우(요셉), 정현수(울리아노), 조성래(루카), 현영호(바오로)
- 분납: 강성란(수산나), 강정임(막달레나), 고귀임(제노베파), 고영호(필립보네리), 광정희(스테파노), 김덕근(프란치스코), 김동균(가브리엘), 김명석, 김성룡(F.사베리오), 김유형(세실리아), 김재갑(요셉), 김차임(아나니아), 김태경(요한), 김현수(모이세), 문용범(빈첸시오), 박상현(베드로), 박성재(세례자요한), 박영희(울리안나), 배재민(제노), 백승전(루시아), 유영호(엘

리지오), 윤기수(베드로), 윤성원(크리스티나), 이경애(가브리엘라), 이정현, 이효원(도미니코), 전재욱(안젤로), 조금연(세실리아), 조대호(에루제니오), 주재덕(말딩), 진정순(안토니아), 진정열(방지거), 천순애(비아), 최소연(로사), 최은영(미카엘), 최지완(알폰소니고디오), 하정순(M.막달레나), 한승식(미카엘)

■중앙동 8,710,000원

- 완납: 김성욱(필립보), 김유진, 김현영, 독고용(라파엘), 박순아(데레사), 박준희(요한), 신순희(모니카), 신옥순(엘리사벳), 정민(안드레아), 주지홍(안드레아)
- 분납: 곽재야(마리아), 김귀자(로사리아), 노민우(디모테오), 배민자(안나), 배해수(다시오), 백남설(요셉), 서필하(발레리아), 성대웅(디오니시오), 손창일(프란치스코), 신영실(발비나), 오경숙(체칠리아), 윤길강(베로니카), 이미선(비비안나), 이영숙(비비안나), 이자형(다미아노), 이정복(바오로), 이정순(데레사), 이지홍, 전덕숙(크레센시아), 제기현(프란치스코), 최성준(로베르토 벨라르미노), 홍대현(안드레아)
- 추가: 황병우(프란치스코)

■지세포 5,710,000원

- 완납: 강미란(올리바), 강상호(도미니코), 오동환(루도비코), 옥소영(테클라), 이부연(안젤라), 최용근(다니엘)
- 분납: 강명옥(미리암), 강병철(다두), 고영란(베로니카), 김정숙(라파엘라), 반효부(베드로), 양재식(파스칼), 유지혜(크리스티나), 이선자(말따), 이창근(안드레아), 장시언(아브라함), 정성복(마태오)

■진교 1,600,000원

■진동 12,635,000원

- 완납: 반선화(아누시아따), 배명희(데레사), 배옥년(요한), 송철식(베드로), 우숙귀(데레사), 이강만(라우렌시오), 이순임(안젤라), 이영자(비아), 이윤희(이나시오), 임경애(안나), 장경호(라우렌시오), 정영현(실바노), 정충실(네스톨), 조윤경(파우스타), 황상운(아우구스티노)
- 분납: 강대석(토마스), 김경희(아녜스), 김말순(안젤라), 김열희(소화데레사), 김태균(미카엘), 김현조(마르코), 김형숙(마틸다), 박명철(안토니오), 배명접(로사), 배상곤(요셉), 변다경(프란치스코), 신혜은(글로리아), 신혜자(데레사), 안문혁(바오로), 안병한(가롤로), 우희숙(마리아), 윤영래(요한), 이명희(마리아), 이민호(프란치스코), 이상엽(요아킴), 이정길(토마스), 전점순(나타리나), 황정환(베드로), 황진환(루치오), 익명 1
- 추가: 김옥금(임마쿨라따), 남인숙(미카엘라)

■진영 5,290,000원

- 완납: 김선희(베아타), 박정숙(카타리나), 박창호(안셀모), 심우선(베로니카), 윤종국(아우구스티노), 이유연(올리아나), 정정옥(아녜스)
- 분납: 김경순(올리아나), 김명호(마르티노), 박동주(프란체스카로마나), 박민수(알로이시오), 박승규(엘리자오), 박풍자(엘리사

벳), 배해경(미리암), 서원미(엘리사벳), 송종식(올리아노), 신성철(안토니오), 심상용(요한), 양상욱(마태오), 엄복순(아셀라), 이석규(알로이시오), 임순재(안나), 정영권(미카엘), 지영갑(안드레아), 최효찬(프란치스코)

■창녕 10,740,000원

- 완납: 공엄현(카이우스), 김태목(스테파노), 신부자(안나), 유재민(요한), 이복재(요한), 이성희(마리아), 하헌관(베드로)
- 분납: 강병문(하상바오로), 곽복선(요한), 구군자(벨라렛타), 김순덕(데레사), 김영혜(베네딕토), 김재화(비오), 김진철(니콜라오), 김창호(베드로), 김희정(로사), 노봉수(프란치스코), 손혜정(올리바), 시삼준(스테파노), 신상길(라파엘), 유주찬(스테파노), 유준욱(프란치스코), 이정(루카), 이지민(카타리나), 하옥출(아녜스), 홍점숙(마리안나), 황미정(미리암), 황정순(바울라), 황춘자(안젤라)

■칠암동 22,623,280원

- 완납: 공수정(루치아), 구자만(마태오), 구태용(베드로), 김구숙(요한), 김규리(카타리나), 김영일(하상바오로), 김종록(대건안드레아), 김태기(요한), 박용욱(미카엘), 박진우(안셀모), 배옥향(체칠리아), 배은형(토마스 아퀴나스), 신영애(루치아), 이명자(클라라), 이상운(브루노), 이영춘(요한), 전성규(다두), 정경돈(올리아노), 정진순(노엘라), 정평화(펠릭스), 조소영(체칠리아), 조연서(소피아), 차숙자(아녜스)
- 분납: 강성현(사비노), 강숙귀(세레나), 강정기, 권하영(스텔라), 김국진(젤마노), 김민영(엘리사), 김병택(스테파노), 김봉두(루도비코), 김상일(요한), 김주진(요셉), 노은비(프란치스코), 노형택, 도창일(차백요셉), 박근식(대건안드레아), 박범현(요한), 박자경(젼마), 박종태(펠릭스), 박진경, 서혜자(아녜스), 오선옥(안젤라), 이광민(스테파노), 이순자(다시아나), 정돌아(클라라), 정은영(안나), 조명제(베드로), 하선영(안젤라), 한인중(베드로), 현병운(프란치스코), 홍영표(베아타)

■칠원 11,000,000원

- 완납: 김성곤(베드로), 김재윤(대건안드레아), 김정희(미카엘라), 김종일(마르코), 민성기(프란치스코), 박영배(야고보), 방순옥(마리아), 송미향(수산나), 안세진(비오), 이일환(요한), 정정선(로사), 최영숙(데레사), 황성철(바오로), 황순용(대건안드레아)
- 분납: 김병준(다니엘), 김영진(아브라함), 노병기(대건안드레아), 노종석(요한데레살), 배소진(아델라), 성기출(베드로), 신승기(라파엘), 이영자(마리아)

■팔용동 9,430,000원

- 완납: 김옥련(세레나), 박두이(요안나), 박민혜(클라우디아), 안순남(도미니카), 이영해(클라라), 이은옥(로사), 이일동(호노라도), 이종호(가브리엘), 정문차(베드로), 허은실(젼마), 황문선(카타리나)
- 분납: 강병희(루시아), 김서용(마태오), 김윤조(프란치스코), 박지원(제노베파), 백금선(아나스타시아), 손성진(마르코), 오화선(요안나), 유숙희(데레사), 이경범(야고보), 장병욱(플로렌시

오), 조은영(골롬바), 허원(요한)

■평거동 5,760,000원

- 완납: 김용규(시몬), 사공정란(루시아), 서성철(시메온), 이근태(요한), 허외수(까리따스)
- 분납: 권해주(토마), 김대근(대건안드레아), 김명숙(헬레나), 김영금(베로니카), 김영란(마리아), 김종련(펠리치타), 김휘정(말가리다), 박정미(세레나), 서혜자(도미니카), 위문수(미카엘), 유종현(파비아노), 이성준(T.아퀴나스)

■하대동 14,380,000원

- 완납: 김점식(모니카), 맹용국(미카엘), 박인희(마티아), 이남선(이나시오), 전연화(펠리치타스), 정덕광(다미아노), 정종도(아카비도), 한상국(바오로), 허정아(프란치스카)
- 분납: 강길중(요한), 강소희(울리아나), 강윤수(라우렌시오), 강태운(미카엘라), 강현숙(파비올라), 김경아(가브리엘라), 김덕순(글로리아), 김명곤(다니엘), 김명남(세실리아), 김민정(빅토리아), 김민주(엘리사벳), 김수연(로사), 김의경(대건안드레아), 김학근(아오스딩), 김혜옥(글라라), 김환영(안토니오), 박성진(실바노), 박진우(라파엘), 백지현(리나), 송인옥(카타리나), 엄동욱(토마스), 이규오(아브라함), 이태규(베드로), 정구상(다니엘), 조봉래(프란치스코), 주용태(프란치스코), 진명규(요한), 최경철(요셉), 최소현(카타리나), 하정안(요한에우데스), 허미경(글라라), 홍외선(요셉피나), 황두원(요한)

■하동 4,530,000원

- 완납: 김명심(안토니아), 임학영(스테파노), 정소달(세라피나), 조성우(요셉)
- 분납: 김미화(루치아), 김성우(대건안드레아), 김영준(루치아노), 김정태(안토니오), 김정희(루피나), 박봉구(베드로), 박예지(세라피나), 박지은(안나), 선우일권(요셉), 우정순(로사), 이주찬(요한보스코), 임영옥(유리안나), 임은선(루치아), 전덕진(유티노), 전상묵(다니엘), 정연옥(세라피나), 정용원(스테파노), 최성룡, 하완심(울리아나), 하종렬(요한.M비안네)

■하청 1,300,000원

- 완납: 장방만(마르코), 김태인(요한), 유연순(가타리나)
- 분납: 윤주원(테오도로), 이창우(가롤로 보로메오), 최광수(요셉), 이근우(이레네오), 김혜경(산치아)

■함안 10,293,000원

- 완납: 성금순(레베카), 류영철(프란치스코), 송순복(마리아 막달레나), 윤봉자(안나), 윤상연(루시아), 윤옥임(엘리사벳), 이동식(레미지오)
- 분납: 권영규(엘리지오), 김금자(유티나), 김대중(발렌티노), 김범규(가브리엘), 김찬두(루치아노), 나숙현(세라피아), 박영순(마리아), 김순경(베네딕타), 안상식(안드레아), 안영란(글라라), 원승주(창흠베드로), 윤혁재(레오), 이경룡(요셉), 이미호(베네딕토), 이병철(요셉), 이진희(에스텔), 임점순(정혜엘리

사벳), 장경수(발라바), 정구락(야고보), 정영봉(레오), 조상희(데레사), 조영규(다니엘), 최비건(엘리사벳), 한임이(젬마), 한화숙(친니아)

- 추가: 김상태(루카), 안희자(엠마), 조순희(마리아)

■함양 7,760,000원

- 완납: 강점숙(요안나), 김동규(대건안드레아), 이용호(안드레아), 정민수(안토니오), 차외분(아녜스), 최영규(베네딕토), 익명 1
- 분납: 김경호(안드레아), 김명선(노아), 김복순(세실리아), 김현범(대건안드레아), 박명제(알비노), 오준영(요셉), 유종엽(이냐시오), 임도임(아녜스), 정다혜(로사리아), 정문석(예로니모), 정보상(미카엘), 조규성(고스마), 최동준(요한), 홍덕초(바드리시오)

■합천 9,170,000원

- 완납: 노호영(시몬), 박순태(사도요한), 백희연(안나), 서외숙(마리아), 안은정(바울리나), 야로공소
- 분납: 김아영(프란치스카), 박성현(대건안드레아), 이동근(요셉), 이순기(글레멘스), 전병춘(실바노), 정승환(루카), 주연주(체칠리아), 주현선(카타리나)

■호계 9,970,000원

- 완납: 김광훈(다니엘), 김기만(필립보), 김기현(알베르토), 김금일(빈첸시오), 김동숙(젬마), 김영구(요셉), 노민현(프란치스코), 박재혁(베드로), 송점이(보나), 신은복(수산나), 안지혜(도비아), 위상인(라파엘), 이정미(엘리사벳), 이종주(제노), 정은선(미카엘라), 조용찬(안드레아)
- 분납: 강정애(미카엘라), 권윤정(루갈다), 권흥국(베드로), 김기현(베네딕토), 김대봉(베드로), 김묘선(미카엘라), 김상천(도미니꼬), 김원열(이냐시오), 김정화(요안나프란체스카), 박부용(베드로), 성기열(울리아노), 윤은실(엘리사벳), 윤필경(헬레나), 이상수(요한), 이상욱(프란치스코), 이재훈(라우렌시오), 조민유(리디아), 조윤정(베로니카), 천은경(미카엘라), 최종덕(다시아노)

■회원동 9,250,000원

- 완납: 김성연(카타리나), 김유미(아셀라), 박미실(베로니카), 배상술(바오로), 안혜진(실비아), 유연란(글라라), 이순주(소피아), 최창걸(베드로)
- 분납: 강정자(세레나), 광규복(모세), 권대현(후베르뜨), 김은주(가밀라), 김이환(요한), 김종철(바오로), 김천일(베네딕토), 류민주(안나), 박승임(수산나), 방영희(릿다), 백윤선(데레사), 변은주(세실리아), 석유화(젬마), 신민섭(막시미노), 심귀남(세실리아), 안재순(요셉피나), 이길태(베드로), 이승욱(안드레아), 이종은(바오로), 장봉수(라파엘), 정재민(라파엘), 정해조(레지나), 조미정(글라라), 최규남(베드로), 최서희(프란치스카), 최정한(베드로), 최준태(클레멘스), 탁재형, 함성렬(안셀모), 익명 1
- 추가: 윤남순(안나)

천주교 마산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T. 055·249·7121